



Byung Ju <pastorju@gmail.com>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1년 2/4분기)

1 개의 메일

Abraham <abraham-kim@hanmail.net>

2021년 6월 30일 오전 9:02

받는사람: 주병열 목사님 <pastorju@gmail.com>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1년 2/4분기)**2021년 6월 30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지에 첫발을 내디딘 때가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그대로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시작된 사역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선교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선교를 위해 후원하며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님들과 현지 교단 총회에 속한 귀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오늘도 저희 가정은 “함께 이루어 가는 선교”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현지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상호 나눔”을 배우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와 저희 가정이 25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건강하게 이루어 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루카스 형제 이야기

1995년에 선교지에서 만난 루카스 형제는 당시 22살의 나이로 아이티공화국에서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온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저희가 사역하는 곳 주변에 있는 아이티인들의 움막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 선교사가 전도를 하다가 교회 주변에서 배회하던 루카스 형제를 보게 되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청했지만 돈이 없어서 신발을 신지 못했기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장선교사는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선교적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루카스 형제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요성경공부와 함께 스페인어 수업에도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때까지 루카스 형제는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이티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인 그레올(상류층은 불어도 사용)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와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스페인어-그레올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 성경공부 모습(저의 왼쪽 2번째가 루카스 형제)

수요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아이티인 형제들은 주중에 일거리가 없으면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며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루카스 형제의 믿음을 보게 하셨고, 그를 아이티인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양육해야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선교사는 루카스 형제와 몇 명의 형제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형제는 그 누구 보다도 열심히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장선교사에게 스페인어를 배우는 루카스 형제(가운데)

그리고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루카스 형제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루카스 형제는 저의 스페인어 설교를 그레올로 통역 해 주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굳은 형제로 자란 루카스 형제는 다른 믿음의 형제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2000년에 개척한 라 에네아 교회에 루카스 형제를 그 교회 전도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라 에네아 교회 담임 전도사 루까스 형제

그리고 루까스 형제의 체류 비자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총회에서 보증해 주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루까스 형제와 라에네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후원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 대지진에 발생했을 때 루까스 형제와 지진 재해 구호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역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해 구호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댓가를 바란 적도 없으며, 자신의 국가 재난에 한국교회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루까스 형제와 함께 아이티공화국복음교단을 찾아가서 그 교단과 함께 협력하여 재해 구호사역을 했으며, 약 2년 이상 모든 재해 사역을 위한 통역을 감당했습니다.

루까스 형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도미니카공화국에 초청해서 얼마동안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의 아내(Elumène)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크게 아파서 아이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떨어져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3년전 2018년 아이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했으며, 연 1회의 만남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사역자 돌봄을 계속했습니다.



루카스 형제 가족과 함께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음으로 인해 이제 루카스 형제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루카스 형제를 선교의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루카스 형제와 함께 왓샵(Whatsapp)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장선교사와 루카스 형제를 통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라 에네아 교회와 아이티에 있는 도바(Tovar)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선교사는 루카스 형제의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 지원 사역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후

이 사진들은 2021년 1월 예배 모습입니다. 코로나19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입할 여유가 없어서 성도들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도바교회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루까스 형제



2021년 5월 30일 도바교회 주일 예배 모습
5월 9일)

라 에네아 교회 리더들(2021년

루카스 형제가 지난 1월(2021년) 왓샵으로 이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에스더(장선교사)선교사님의 진정한 선교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저의 스페인어 이름)은 저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세운 사역자와 함께 20년 이상 함께 선교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1. 코로나 19 환경 속에서도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2.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주일학교 교재 5권 집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3.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장학위원회에 속한 장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4. 현재 교회 건축이 진행 중인 네이바교회 건축을 위해서
5. 루카스 형제가 라 에네아 교회와 도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김종성 목사/장은경 선교사